

영화 <아가씨>의 각색에 따른 영화 흥행 요인 분석

Analysis of Performance Factor of the Movie-The Handmaiden by Adapting

최영미, 조이운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 경영학과

Young-Mi Choi(chosuan01@daum.net), I-Un Jo(choiw5@daum.net)

요약

본 연구는 영화 <아가씨>에서 변형된 시공간과 캐릭터를 통해 흥행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원작 소설이 있는 영화는 소설의 내러티브를 기초로 영화의 경험재적 특성을 감소시켜 관람 욕구를 유도한다. 본 영화는 소설의 배경인 빅토리아 시대와 다른 일제강점기를 선택하여 식민주의 남성성의 특징을 구현하는 캐릭터를 만들고, 남성에게 억압받는 여성들이 계급성을 초월하여 탈주하는 내용으로 변형하였다. 이를 통해 원작소설의 동성에 요소가 여성의 성장과 연대로 치환되어 부정적 요소를 감소시켰다. 또한 영화 개봉 시기 발생한 여성 대상 범죄의 젠더 담론은 캐릭터들의 공감 요소를 증대시키고 영화의 주제와 부합하였다. 그의 감독과 배우의 스타시스템과 영화 예고편의 효과적 공개 마케팅, 영화제 진출작 선정을 흥행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영화는 소설의 각색을 통해 다원적인 창작 역량을 증대하고 관객의 공감 요인을 확대한다. 흥행하는 각색 영화의 차별성은 변형된 내용이 창의적이면서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적 인식과 상응할 수 있는 주제를 내포하고 매체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다.

■ 중심어 : | 캐릭터 변형 | 식민주의 남성성 | 여성 연대 | 보편적 인식 |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analysing a box office success of The Handmaiden in terms of modified space-time and character. The movie which has original novel induces desire of watching by decreasing property of experience good of movie based narrative of novel. Contrary to novel that is set in Victorian age, the movie changed contents that make a character who realizes masculine of colonialism and women oppressed by man escape through transcending class by adopting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It hereby decreases negative effect by substituting growth and solidarity of women for the element of homosexuality. Also the gender discussion about crimes against female when the movie was running increases factor of sympathy of characters and accord with subject of the movie. Beside that, The reasons of success are detector, star system of actor, effective public marketing of movie trailer and selection of movie won the award for best picture at a film festival.. Movie through adapting novel enhances ability of various creation and blow up appreciation of spectator. The differentiation of adapted hit movie is that the altered content is creative, has subject that corresponding with universal awareness transcending space-time and expresses property of media effectively.

■ keyword : | Character Translation | Masculine of Colonialism | Female Solidarity | Universal Awareness |

I. 서론

영화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산업이며, 1997년 이후 한국의 영화산업은 꾸준히 성장했다.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와 해외 개봉 영화의 국내 개봉 편수의 증가와 함께 투자와 배급, 제작 환경의 발전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013년부터는 국내의 1인당 연간 관람 횟수가 4회 정도로 미국과 비슷하다. 이는 미국과 한국의 인구 대비로 보면 결코 작지 않은 수치이며, 관객이 거는 영화 내용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영화산업은 경제적 효과가 큰 산업이지만 관객은 영화를 선택할 때 경제적 요인만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영화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첫째, 일반 제품처럼 품질을 음미하고 구입하지 않는다. 예고편, 입소문, 광고 등과 같은 간접 경험을 통해 영화를 관람하게 된다. 그래서 배급사는 영화 개봉 전 막대한 광고비를 투자하여 관객의 호기심을 유도한다. 또한 가능한 다수의 상영관을 확보하여 개봉 시기 초반 관객몰이를 하고 악평의 입소문이 나기 전에 손익 분기를 맞추고자 한다. 영화의 극장 개봉 기간은 길어야 몇 주에 불과하며 소비가 반복되지 않는 특성을 반영한다[1]. 둘째, 영화는 개봉시기가 중요하다. 광고나 예고편이 노출되는 시점에서 영화 내용의 과다노출은 관객의 호기심을 감소시키고, 홍보가 적은 경우 충분한 상상력을 자극하지 못한다. 또한 개봉 시기의 사회적 이슈가 중요하다. 영화의 주제와 관련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 등은 관객의 관심을 증가시키고 몰입도를 높인다. 셋째, 영화상품은 기업의 브랜딩이 중요하지 않다. 흥행 영화의 제작사라는 지명도 보다는 감독과 배우의 지명도가 관객을 각인시키기 쉽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트디즈니에서 만든 영화'라는 브랜드는 큰 가치를 지니지만, 일반적인 관객들은 흥행에 성공했던 영화의 감독과 배우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또한 원작을 각색한 영화의 경우 컨텐츠 상품의 특수성에서 정보비대칭을 축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익숙한 스토리텔링의 차용과 변형은 관객에게 새로운 예술적 쾌감을 부여한다. 또한 내러티브를 전달하기 위해 시공간과 캐릭터의 차용과 변형도 이루어지게 된다. 캐릭터는 단지 배우의

명성이나 신체적 매력에 한정되지 않는다. 배우의 연기력과 매력성에 대한 평가가 영화 광고나 홍보에 사용되지만 영화의 주제를 전달하고 타당성을 느끼게 하는 캐릭터의 기능을 간과하면 영화의 생명력은 떨어진다. 허구성을 전제하는 창작물에서 캐릭터는 영화 속 상황의 행동자로서 작가의 생각을 대변하고 관객에게 친근하고 유사성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관객의 감성은 캐릭터의 능력과 행동이 영화가 지향하는 성취목표에 부합할 때 적극 공감하게 된다.

박찬욱 감독은 영화 각색을 통하여 자기 색깔의 스타일을 강화한다. <올드보이>는 원작에서 감금이라는 소재와 복수의 모티프를 가져왔지만, 근친상간과 특별한 액션시퀀스로 바꿔 새로운 스타일의 영화를 만들었다. <박쥐>는 남편의 살해를 공모하는 사건을 주요 서사로 삼고 있지만 뱀파이어 신부라는 역할을 새로 추가하여 원작 소설과 차별화된 작품세계를 구축하였다. 박찬욱 감독의 전작 <박쥐>(2009), <스토커>(2013)과 같은 근작들과 더불어 <아가씨> 역시 종속적인 여성이 독립 주체로 성장해서 탈주하는 여성의 성장을 그린다. 영화 <아가씨>는 예술적 요소와 대중적 요소를 모두 갖추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한국영화는 대개 독립을 주제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인물들의 이야기와 시대적 울분을 민족적 시각으로 담은 영화가 주류지만, 영화 <아가씨>에서는 캐릭터 변용의 요소로서만 작용했다.

본 논문은 영화 <아가씨>가 원작소설 <핑거스미스>를 각색하는 방식에서 원작소설과 영화의 배경을 비교해보고, 영화 상영 시기의 사회적 이슈가 상호작용한 상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캐릭터의 차용과 변형을 통해 영화 흥행 요인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영화관람의 영향 요인은 네 가지로 분류 가능하다. 개인적, 환경적, 상황적 요인과 정보 요인이다. 개인적 요인에는 관객이 가지고 있는 기존 태도와 개성, 라이

프스타일, 사전 지식의 양 등이 포함된다. 환경적 요인에는 문화, 사회계층, 준거집단 요소 등이 있다. 상황적 요인에는 관람 동기, 관람 상황, 관람 동반자 등이 있고, 정보 요인에는 정보의 원천, 종류, 용도 등이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화 흥행 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예술영화와 상업 영화에 있어 스크린 수와 관객의 평가, 장르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예술영화의 경우 감독의 명성, 상영등급, 전문가 평가, 배급사 영향력, 영화 제작국, 개봉 시기는 더욱 중요한 예측변수로 검증되었다[2]. 국내 영화 중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 영화<변호인>은 소셜미디어의 분석을 통해 스토리, 배우, 감독의 연출력이 주요했음을 밝혔다. <광해, 왕이 된 남자>와 같은 팩션영화의 경우 역사 속 인물을 재조명하는데, 대중이 바라는 지도자상을 재해석하여 대선을 앞둔 개봉시기에 관객 호응이 적절히 이루어져 흥행에 성공하였다[3][4]. 국내 상업 외화 중 역대 1위를 차지한 영화 <아바타>의 경우 3D입체영화라는 기술적 이슈가 흥행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스토리텔링의 원형이 주는 감동이 없었다면 불가능하다. 이는 관객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기억이 텍스트와 상호작용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증명한다. SF영화에 부정적인 전문 평론가들조차 호평을 이루었던 이유는 스토리텔링의 원형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공감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5]. 해외 영화들은 다양한 볼거리를 위주로 하는 액션 영화가 주로 흥행하는데 국내 개봉하는 프랑스 영화들이 ‘다양성 영화’ 혹은 ‘예술영화’ 등의 통념 때문에 할리우드 영화보다 흥행이 부진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영화<테이큰>의 경우 부성애를 내용으로 액션 장르를 도입하여 큰 흥행 성공을 이루었다. 탄탄한 시나리오의 강점도 있었지만, 개봉 당시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사과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납치된 딸을 구하는 내용이 액션장르임에도 여성관객을 모으는 흡인력이 되었다[6]. 이 외에도 영화흥행과 문화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도 있다. ‘문화 할인’의 개념은 문화상품인 영화가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상영될 때 고려할 문화적 상황이다. 영화<해오버>(2009)의 경우 결혼 전 총각파티에 관한 해프닝을 다루었다, 영화 제작국인 미국과 달리

한국, 일본, 중국 등의 흥행성과는 매우 저조했다. 총각파티는 미국의 관습상 익숙하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낯설고 거부감이 들어 유머 코드가 통하지 않은 예이다[7]. 영화 관람의 다양한 요인 중에서 캐릭터 역시 중요하다. 영화 캐릭터는 내러티브의 전달자로서 기능하며 캐릭터 상호간의 영향을 주고 받게 된다. 캐릭터의 능력과 행동을 통해 관객은 감정반응을 일으킨다. 캐릭터의 매력성은 유사성과 차별성, 고풍격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영화의 동감과 감정이입을 유발하여 영화 흥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8].

III. 각색의 개념 및 유형 구분

각색이란 문학 장르를 다른 형태의 장르로 변형하는 것이다. 문학이 언어를 예술적 표현의 체계로 삼는다면, 영화는 이미지와 사운드를 상호작용시킨다. 더들리 앤드류는 영화각색이 “영화적 기호체계를 다른 체계에서 선행한 성과와 조화시키는 것”으로 파악하고, (문학)원작과 초월적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 자체로 새로운 예술작품이 된다. 그래서 “영화 각색과정은 문학과 분리된 초월적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예술 창작 과정이 되는 것”이다. 각색은 원작의 차용과 더불어 매체의 특성에 맞는 방식을 선택한다. 주제와 관점에 따라 각각의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추가하여 새로운 맥락을 구성한다. 원작과 각색 작품을 비교해 볼 때 작품의 의도와 세계관은 때로 유사하면서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독특한 개성을 발휘하게 된다[9].

루이스 자네티는 원작에 대한 충실도에 따라 대략적 각색, 충실한 각색, 독자적 각색으로 분류하였다 대략적 각색을 한 작품의 예는 다음과 같다. 구로사와 아키라의 영화 <린>과 <거미집의 성>은 각각 셰익스피어의 희곡 <리어왕>과 <맥베스>를 원작으로 하지만 중세 일본으로 배경으로 하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한다. 충실한 각색은 1960년대 ‘문예영화’로 불린 한국영화들처럼 플롯 구조와 인물, 사건들이 그대로 표현되어 원작의 예술적 태도와 주제를 충실하게 구현한 예로 볼 수 있다.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 역시 원작의 소설을

충실히 각색했다. 베스트셀러였던 원작소설의 관객층이 두텁고 원작 자체가 영화화되기에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축자적 각색은 ‘희곡을 원작으로 삼는 경우이다. 원작의 변형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프랑스의 ‘필름 다르’사는 성공적인 연극들을 영화화하여 흥행에는 성공했으나 예술 장르의 전이를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10].

더들리 앤드류는 영화와 텍스트 사이의 관계 양식을 세 가지로 정의했다. 차용(borrowing), 교차(intersection), (원작에 충실한) 변형(transformation)이 그것이다. 차용은 원텍스트에서 모티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원형’으로 불리는 성공적인 텍스트가 자주 사용된다. 교차는 원작 텍스트가 갖고 있는 의도를 유지한다. 텍스트와 영화가 상호작용을 통해 영화의 특성을 표현한다. 변형은 원작의 ‘문자’ 및 ‘정신’에 얼마나 충실한가로 평가된다. 문자는 등장 인물 간의 상호관계와 콘텍스트를 제공하는 지리적, 사회학적, 문화적 정보, 기본적인 내러티브 요소들(시제, 스토리텔러의 참여도와 인지도 등)을 포함한다, 정신은 원작의 톤, 가치, 이미지, 리듬 등과 관련된다[11]. 영화 <아가씨>는 시공간적 배경과 이에 따른 인물의 변용, 결말의 상이한 처리 등으로 <아가씨>는 <핑거스미스>와는 다른 길을 가게 된다. 이는 더들리 앤드류의 ‘차용’과 ‘충실한 변형’이 복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각색의 흥미로운 점은 매체의 특징을 파악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렬하게 부각시키는 예술적인 상상력이 발휘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각색자의 관점과 해석이 포함되어 매체적 표현 형식을 통해 재해석될 수 있다.

3.1 영화 <아가씨>의 원작소설 각색

영화<아가씨>의 원작소설 <핑거스미스>는 산업혁명과 식민주의를 겪는 런던을 배경으로 막대한 유산의 상속녀와 결혼하여 재산을 가로채려는 사기꾼과 계획에 동참하는 여성의 이야기다. 상속녀인 모드 릴리는 재산관리인인 삼촌 크리스토퍼 릴리와 런던에 살고 있다.

표 1. 원작소설과 영화 비교

구분	소설	영화
인물	크리스토퍼 릴리/젠틀먼/수/모드/석스비 부인/수의 생모	코우즈키/백작/히데코/숙희
배경	빅토리아시대, 런던	일제강점기, 조선
차용	상속녀/정락결혼/가부장적 억압/하녀와 아가씨의 사랑	
배제	출생의 비밀/석스비 부인의 희생	
변형	여성의 성장/연대/탈주	

사기꾼 젠틀먼은 모드와 결혼하여 상속재산을 받은 다음 그녀를 정신병원에 넣고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여기에 장물아비 소굴에 사는 수를 조력자로 선택하고 거래를 제안한다. 수는 계획을 성사시키도록 노력하지만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은 모드가 아닌 수다. 총3부로 이루어진 이야기 중 1부는 수의 시점으로 서술된다. 2부는 모드의 시점으로 전개된다. 모드는 자신의 어머니가 정신병자였으며, 자신을 낳다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녀는 정신병원에서 살다가 삼촌의 집으로 왔고, 삼촌의 강요로 도색소설을 낭독하며 원치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모드는 젠틀먼과 형식적으로 결혼하여 유산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신의 대역인 ‘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 3부에서 수와 모드의 출생의 비밀이 드러난다. 석스비 부인은 남편 없이 아이를 낳은 여인을 돌보게 되고 그녀는 크리스토퍼 릴리의 여동생이자 수의 생모였다. 자신의 가문과 삶을 저주한 그녀는 석스비 부인에게 자신의 아이를 돌볼 것을 부탁하고 17세가 되면 아이의 유산을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한다. 석스비 부인은 자신의 아이인 모드를 귀족집에 대신 보냈고, 모드가 17세가 되면 유산을 모두 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희생양이 되었던 수는 정신병원을 탈출하여 도둑 소굴에 돌아와 해명을 요구한다. 이때 젠틀먼은 사건의 진실을 폭로하려다 죽음을 맞이하고 석스비 부인은 스스로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사형을 당한다. 그 뒤 모드와 수는 재회하게 된다.

영화는 3부의 내용을 삭제했다. ‘출생의 비밀’ 요소가 제외되어 영화의 내용이 간결해졌다. 소설과 영화에서 1부, 2부의 시점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3부는 여성들을 억압한 남성들의 과밀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모드와 수, 크리스토퍼 릴리, 젠틀먼의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였다. 크리스토퍼 릴리는 도색소설을 수집하고 낭독

회를 주관하는데 영화에서는 보다 변태적인 욕망을 가진 가학적 인물로 재현된다. 그의 욕망이 투영된 '지독한 행위'로 인해 히데코는 '동정'받을만한 인물이 된다. 로널드 H 토비아스는 이러한 플롯이 관객이 등장인물을 이해하고 감정이입할 수 있는 지점이 된다고 주장했다. '지독한 행위'의 결말은 약하고 여렸던 소녀에게 전환점을 주고 삶을 재생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젠트먼은 소설에서 단순히 상속녀의 재산을 탐하는 인물로만 등장한다. 그에 비해 영화 속 백작은 코우즈키에 의해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하면서도 가부장적 억압과 그릇된 욕망을 가진 남성성이 응징당하는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 모드와 수는 서로를 속이는 계약의 대립적 인물이었다가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후 화해하게 된다. 영화 속 히데코와 숙희는 서로의 정체성을 일깨우고, 그들을 억압하던 세계를 탈출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3.2 배경(시공간)의 변형

영화 <아가씨>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다. 원작소설의 빅토리아 시대와 변용된 점은 유사성과 차별성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빅토리아시대는 종종 19세기를 문화적으로 통칭하기도 한다. 이것은 영국은 물론 영국의 문화적 식민지였던 미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의 문화적 특성을 일컫는다. 이 시기의 성별을 둘러싼 엄격한 규범들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적용되었고 각각의 특색을 지녔다. 여성의 미덕은 남을 배려하고, 집안일을 주로 하며, 남편과 아버지, 아들을 보필해야 했다. 남성은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일하도록 정립되었다. 이것은 성 차별과 젠더 구분의 근거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새로이 형성된 중간계급은 귀족의 부패와 허약함을 대조시켜 정치적, 경제적 지배의 권력 구도를 상징하여 부동의 남성성을 가정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성은 식민지에 투사되며, '집안의 천사'인 이상화된 여성성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무절제한 피지배민의 몸'과 대비되는 '신사'의 개념을 만들었다. 식민 지배자의 남성성은 강인하며 그 자체로 피지배자들에게 과시되어, 지배자 스스로 자기 훈육을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식민 정책은 지배자인 영국인 뿐만 아니라 피지배자인 인도인에게도 영향력을 발휘했다. 지배자를 흉내내려는 욕망과 더불어 식민주의의 부산물인 새로운 문화의 기원을 자국 문화에서 찾아내는 현상을 예로 들 수 있다. 영화 <아가씨>의 배경이 된 1930년대 일제강점기 역시 이와 유사하다. 제국주의를 설파하던 식민지 시대, 이상적인 남성의 이미지와 젠더의 역할을 고착하고, 계급이 존재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변용은 영화의 스토리텔링에 있어 이해도와 호응도를 높이게 된다.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보다는 익숙한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관객은 허구의 세계에 좀더 관대해지고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3.3 캐릭터 변형

코우즈키는 원래 조선인이었지만 귀화하여 일본인 행세를 한다. 식민지 시대 피지배인이 단순히 생존의 방식으로 추종하는 차원이 아니라 탐미하고 숭배한다. 그는 서양식으로 먹고 자며 일본식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부를 유지한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만 그는 여전히 조선을 떨치고 일본을 또다른 욕망의 해소 방식으로 가문의 상속녀인 히데코와 그녀의 이모에게 여성을 정복하는 환상을 다룬 도착적 외설물을 낭독시킨다. 코우즈키를 비롯한 낭독회의 참가 남성들은 지배 판타지를 충족한다. 많은 장서를 가지고 있지만 본인이 추구하는 신사 이미지와 전혀 다른 음식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억압하고 희생시키는 데 아무런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다. 코우즈키가 책을 소비하고 향유하는 방식은 하인의 지계에 앉아서까지 읽어나가는 도착증상으로 표현된다. 또한 체책도구를 고문도구로 활용하고 인간의 피부로 장정한 책을 만들 작정을 하는 잔인한 심성을 가졌다[12]. 코우즈키가 구축한 세계인 서재는 히데코와 숙희에 의해 훼손된다. 그의 도락적 생은 자신의 아끼던 책과 아름다움에 의해 파멸한다. 백작은 매음굴 호객꾼 출신으로 귀족을 흉내내며 위조된 삶을 살다 '사랑'이라는 진짜 감정에 빠져들어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 역시 탐미주의자로 돈에 대한 관심보다 최상의 포도주를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여유를 원하는 인물이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수은 담배를 넣

고 다닐 정도로 삶의 매혹적인 향락을 극단적으로 추구한다. 결국 그는 ‘가짜’를 만들다 ‘진짜’ 사랑에 빠질 때 파멸한다. 원작 소설 <핑거스미스>에서 젠틀먼과 달리 백작은 보다 입체적인 인물로 변용되었다. 숙희는 장물 아버지가 소굴에서 자랐지만 아기들을 돌보는 행위를 통해 돌봄의 능력과 상대방에게 공감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돈을 목적으로 백작의 계약에 가담하지만 히데코와 대면하면서 친밀감을 넘어 운명의 개척자로 나선다. 히데코는 자신이 엄마의 죽음과 맞바뀌 태어난 아이라는 데서 오는 자책과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 코우즈키의 지하 세계를 두려웠고 혐오하지만 낭독희의 배우 같은 삶에 간혀있다. 낭독희에서 읽는 책들은 외설적이고 음란하여 청자들의 쾌락을 취락파락하지만 정작 히데코는 그러한 쾌락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 처음에는 백작과 계약을 도모하지만 숙희를 통해 자아의 상처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코우즈키는 ‘아름다움은 그저 잔인한 법’이라 말하며 히데코를 투사한다. ‘아름다움을 위해 잔인해질 수 밖에 없다’는 당위를 주장하며 히데코의 삶을 억압한다.

IV. 영화 흥행 요인

4.1 동성애 요소 배제

영화<아가씨>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맞서 싸우는 퀴어 영화가 아니다. 비록 두 여성의 섹스 장면이 등장하지만 남자들의 섹스와 여자들의 섹스를 대비시킨다. 남자들의 성욕은 여성을 착취하고 소유하는 물신숭배와 연결돼 있다. 파농은 <검은 피부 하얀 가면>에서 백인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흑인의 욕구와 그것을 인정하는 대상이 백인 여성으로 한정되는 한계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피식민지 대상자가 지배자를 내면화하여 지배자의 위치로 동일시하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코우즈키 역시 일본을 동경하는 조선인 남성으로서 인정욕구를 충족시켜 줄 대상은 히데코이며, 그녀가 낭독하는 음란서적에 대한 폐티시즘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대리만족한다. 이러한 행위에서 여성은 대상화되며 교감하는 상호작용은 배제된다. 그에 비해 히데

코와 숙희의 섹스는 상대방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는다[14]. 히데코와 숙희의 관계에는 동성애적 관계에서 드러나는 남성, 여성의 성 역할이 표현되지 않는다. 상해로 가는 장면에서 남장을 하는 캐릭터로 인해 히데코가 남성적일 수 없고, 저택을 탈주할 때 높은 담을 넘도록 가방을 받쳐주듯 서로의 필요한 부분을 돕는다. 영화 전체 내용 중에서 여성들만의 사랑을 인정해 달라는 요소가 언급되지 않는다. 두 주인공이 진실을 실토해 의기투합하는 모험으로 스토리를 이끌었다. 영화 속 캐릭터는 내러티브 안에서 관객과 교류할 수 있는 도구로 기능하며 관객의 감정반응을 유도한다. 관객은 영화가 허구적 구조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더불어 캐릭터가 자신과 유사하면서도 보편적 인식의 매력 있는 품격을 갖추길 원한다.

4.2 젠더 담론과 사회적 이슈

‘남성성’에 관한 담론은 2000년대부터 부상했다. 남성성이 개인의 폭력은 물론 국가권력의 폭력과 국가권력 자체에 봉사하는 기제에 대한 성찰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여성성에 대한 담론과 대립하여 계급적 억압과 성적 억압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영화 <아가씨>의 상영 시기 직전 2016년 5월 17일 발생한 ‘강남역 여대생 살인 사건’은 한국사회에 성 차별과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문제를 공론화시켰다. 이 시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의 강남역 사건에 대한 111개의 기사는 5개의 프레임으로 나눌 수 있다[13]. 권능화, 여성 혐오 범죄, 약자 혐오, 조현병 환자 인권과 남녀갈등 프레임이다. 이 중에서 권능화 프레임은 여성들을 사건의 피해자와 동일시하는 효과를 낳고, 여성들이 겪고 있는 차별적인 현실에 분노하게 하였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여성의 50.9%는 불안을 느끼고, 가장 주된 불안 요인으로 ‘범죄 발생’ (37.3%)을 꼽았다. 2015년 강력범죄 피해자의 88.9%는 여성으로 드러났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성별로 인해 갖게 되는 불안감을 반영하듯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성들의 유대감을 공고히 하며 ‘나는 페미니스트’라는 해시태그 달기 운동도 확산되었다[15]. 이 사건은 특정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으로 만연한 여성 차별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표 2. 영화 개봉 시기 종합일간지 기사 분석

구분	4.1~5.16	5.17~5.31	6.1~6.30	7.1~7.31
여성혐오	25	320	115	81
페미니즘	13	25	42	56
여성연대	2	4	5	4
여성주의	3	18	17	24
성 차별	38	63	179	71
성 평등	33	26	38	18

필자가 종합일간지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를 대상으로 ‘강남역 살인 사건’ 전과 발생시점을 나누어 기사들을 분석해 본 결과 발생 시점 이후 여성 혐오와 여성문제 관련 기사들이 많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영화 <아가씨>의 개봉일은 2016년 6월 1일이며, 개봉 시기 내내 영화 주제와 부합하는 미디어 보도 내용들이 보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건 발생 시점에는 ‘여성혐오’에 대한 보도가 가장 많았고, 영화 상영 시기 중에는 ‘성차별’, ‘성평등’에 대한 보도가 증가하였다. 이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관점에서 나아가 다양한 논쟁을 가져오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영화<아가씨>는 관객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21세기의 한국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질문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경제적 발전은 사회를 빠르게 변화시켰지만 여전히 사회의 틀은 견고하며, 그 틀을 깨는 것은 쉽지 않다. 영화 <텔마와 루이스>에서 여성들이 남성의 억압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차를 달려 그랜드캐니언에서 추락하는 죽음이였다. 여성은 가부장적인 사회적 관습에 부응하는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적받았고, 저항할 경우 폭력의 대상이 되거나 반사회적 행동으로 지탄받았다. 페미니즘은 여성이 차별받는 남성적인 사회에 저항하는 여성 해방의 이데올로기다. 여성의 타고난 성(sex)보다 사회적으로 규정되고 분류되는 성(gender)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주장한다. 페미니즘은 출산과 낙태 같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과 생존이 걸린 여성 대상의 폭력과 범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약자에 대한 권익에 대한 담론이다. 젠더의 문제는 성적지향 또는 인종, 민족, 계급 등의 정체성 문제와 연결되어 매몰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 계층이 여성을 중심으로 연대할 때이다. 영화 <아가씨>는 남성과 여성의 대결 구도에 한정되지 않는다. 히데코는 코우즈키에 대한 복종과 저택 안의 규율에 대한 준수를 내면화한 ‘인형’이었다. 억압되고 자유가 포박된 환경에 순응하기만 하면 빛나는 보석을 치장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 타인의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였던 히데코가 억압에서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를 꿈꿨다면 숙희는 돈이라는 지리멸렬한 결핍의 해방을 꿈꾼 인물이라는 점에서 내적 자아의 공통점을 지닌다. 다른 처지의 두 인물의 연대의식이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영화 속 일제강점기 배경과 다른 현재의 관객들이 히데코와 숙희가 처한 환경에 공감하며 몰입할 수 있다.

4.3 영화적 공간

코우즈키의 대저택은 양식, 일본식, 조선식 건물의 형태이다. 일본을 숭배하여 일본 여성과 혼인하고 귀화하는 인물의 특징을 드러내며, 일본의 근대화 모델이었던 영국의 양식 또한 저택에 적용되었다. 서양과 일본의 문화가 혼재하던 시대적 배경과 더불어 조선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이상화하던 코우즈키의 심리를 보여 준다. 숙희가 하녀로 저택에 처음 도착한 날 집사의 뒤를 따라 양관의 1층 계단에서 계단을 거쳐 2층의 아가씨 방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는 백작의 사기에 동참해 신분 상승을 꿈꾸는 숙희의 욕망을 암시한다. 또한 아가씨와 같은 층을 쓰는 방식은 계급적 관계가 동지적 관계로 이동하게 될 것을 복선으로 표시한다. 저택에는 빛이 들지 않는데 책을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빛을 통제했기 때문이다. 언뜻 애서가의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양과 먼 음식의 수집에 열을 올린다는 점을 알게 되면 아이러니의 표현일 뿐이다. 서재는 영국식이지만 일본 무로마치 시대 양식의 정원, 노(能)극의 무대와 일본식 도쿄노마를 확장해 뒤섞은 형태이다. 근대적인 문명을 모방하려는 후발 근대국가의 식민주의적 욕망이 그대로 드러난다. 서재의 입구에 뱀 조각을 ‘무지의 경

계'로 명명할 정도로 지적이미지를 과시하고자 하지만 코우즈키라는 인물에 대한 속물 근성을 풍자한다. '무지'의 상징을 넘어선 공간에서 신사복을 갖춰 입은 채 음서 낭독에 빠진 남성들은 빅토리아 시대를 연상시킨다. 그 시대는 강인한 남성성의 규범 속에서 강화된 성적 억압으로 인해 성매매가 확산되었던 시기였다. 서구적 근대화의 본질은 외면한 채 후발 근대화 주자의 강박이 닿은 곳은 비뚤어진 욕망의 분출일 뿐이었다. 코우즈키 저택의 구조는 공간의 벽과 구획, 경계가 정해져 있고 구조대로 움직이도록 히데코를 강제했다. 그에 비해 숙희는 신분 차이에 굴하지 않고 구조와 규칙을 무시한다. 히데코와 숙희가 저택을 나서기 전 서재의 책들을 훼손하고, 서재를 망가뜨리는 장면은 변태적인 남성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여성들의 연대와 탈주 장면으로 주체의식과 부합한다. 서재가 코우즈키의 과시욕을 투사했다면 지하실은 좀더 과감한 내면을 드러낸다. 문어가 있는 그로테스크한 수족관, 동물들의 성기를 암시하는 기괴한 장식들, 제책도구들이 진열되어 있다. 영화 후반부에서 백작을 제책도구로 고문하는 장면이 나온다. 어린 히데코를 훈육하던 장소로도 언급했듯이 이 장소는 타인의 욕망을 제압하고 철저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공간이다. 서재의 낭독회에서 히데코가 책의 내용과 관련된 체위를 인형 퍼포먼스로 진행한다. 낭독회의 청중들에게는 글로만 읽어서는 파악하기 힘든 내용에 대한 일러스트레이션 효과로 등장하지만 코우즈키와 청중의 변태적 특성을 부각시켰다. 규율과 공포가 몸에 각인된 히데코가 타자의 시선에 의해 구속당하고 수동적 신체로서 표현된다. 보영당은 원작소설 같은 장물아비의 소굴로 쓰이지만 석스비부인의 에피소드를 삭제하고 숙희가 지닌 모성성의 토대로 기능한다. 영아를 매대하는 그곳에서 숙희는 수유할 수 있는 동료를 부러워하며, 자신의 아기가 아님에도 지극한 정성을 쏟아 돌봄에 익숙한 심성을 키워낸다. 영화 후반부에 등장하는 선실은 히데코와 숙희가 상해로 떠나는 배에서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다. 선실의 내부는 붉은 기운으로 따뜻한 분위기를 냈고, 귀족과 하녀라는 계급성을 떠나 철저히 연대하는 모습을 그려냈다.

V. 결론

영화<아가씨>는 소설<핑거스미스>를 각색한 영화다. 내러티브 형식과 시점을 달리하는 구성을 차용하고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캐릭터를 변형하였다. 원작의 출생의 비밀과 동성에 요소는 배제된 채 반전의 요소도 줄였다. 영화 속 캐릭터는 식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남성들의 허위의식과 욕구 충족을 위해 여성을 억압하고 착취한다. 여성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자아를 찾고 연대하여 탈주한다. 영화의 매체적 특성에 맞는 시공간의 형태는 캐릭터의 기능성을 강화하고 여성의 성장과 연대를 표현하여 관객의 공감을 증대시켰다. 영화의 개봉 시기 발생한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젠더 담론은 영화의 주제와 연결되었고 허구적 상상력의 이야기가 사회적 현실을 투사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영화의 각색을 통해 안정적인 내러티브를 구현하고 변형된 내용에 따라 창의적이면서도 사회문화적인 보편적 주제와 부합하는 것이 차별적 흥행요인이 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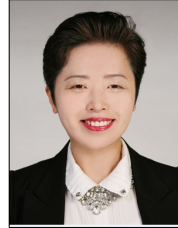
- [1] 강승구, 장일, *영화산업과 마케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pp.30-31, 2009.
- [2] 김소영, 임승희, 정예슬, "영화 유형별 흥행 성과 예측 요인의 비교 연구: 예술 영화와 상업 영화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2호, pp.381-393, 2010.
- [3] 이오준, 박승보, 정다울, 유은순, "소설 빅데이터를 이용한 영화 흥행 요인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0호, pp.527-538, 2014.
- [4] 김경식, 정지훈, "팩션영화<광해, 왕이 된 남자>의 흥행 요소 분석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6호, pp.179-190, 2015.
- [5] 김정호, 김재성, "한국 영화 4대 배급사의 흥행 10분위 기반 배급 행태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6호, pp.305-322, 2016.

- [6] 박찬선, “영화<아바타>의 흥행 요인 분석-상호 텍스트성 개념을 중심으로”, 영상문화콘텐츠연구, Vol.7, pp.79-100, 2014.
- [7] 한화성, 김건, 김양식, “영화<테이큰>의 상업적 흥행성과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애니메이션 연구, Vol.33, pp.293-315, 2013.
- [8] 우정권, “영화 흥행과 문화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해오버>에 대한 한국과 미국 관객 반응을 중심으로”, 영화연구, No.60, p.120, 2014.
- [9] 최낙환, 임아영, “영화의 동감과 감정이입을 유발하는 캐릭터의 기능성 요인과 매력성 요인”, 산업경제연구, 제24권, 제1호, pp.539-574, 2011.
- [10] 이형식, 정연재, 김행희, *문학텍스트에서 영화텍스트로*, 동인, 2004.
- [11] 루이스 자네티, 김진혜 옮김, *영화의 이해: 이론과 실제*, 현암사, 2007.
- [12] 앤드류, 김시무 외 옮김, *영화 이론의 개념들*, 시각과 언어, 1998.
- [13] 김영진, 김수빈, 김혜리, 박찬욱, 신형철, 유지원, 장운성, 정지혜, 조재휘, *아가씨야카입, 그책*, 2017.
- [14] 프란츠 파농,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인간사랑, pp.83-84, 2003.
- [15] 백지연, *여성혐오를 둘러싼 의미투쟁-5대 일간지의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저 자 소 개

최 영 미(Young-Mi Choi)

정회원



- 199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문학사)
- 2010년 8월 : 한국방송통신대 국문학과(문학사)
- 2012년 2월 : 경기대 문화예술대학원 독서지도학(독서지도학 석사)

▪ 2016년 9월 ~ 현재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독서심리학, 문화콘텐츠, 영화

조 이 윤(I-Un Jo)

정회원



- 1993년 2월 :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문학사)
- 2008년 2월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석사)
- 2011년 7월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법학석사)

▪ 2016년 2월 :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부동산 경제학박사)
 ▪ 2016년 2월 :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2016년 2월 ~ 현재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학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 부동산금융, 전세가격, 주거부담, 거시경제